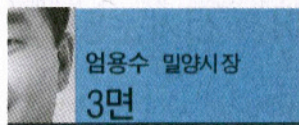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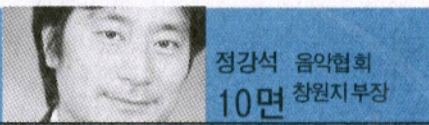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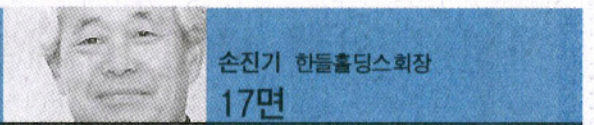


慶南日報

관심안 안내가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개항대리점
부산교통 월드투어
 애인 여행, 어니온 제주도, 전세대절
 위치: 진주시 인사동 (부산교통본사 내)
 여행문의 및 국내 외 항공권 예매 055) 743-3300

www.gnnews.co.kr

 임용수 밀양시장 3면	 주심 베트남 이주여성 4면	 정감식 음악협회 10면 창원지부장	 김인택 경남경철청장 16면	 손진기 한들홀딩스회장 17면
---	--	--	--	---

대한민국 지역신문의 호시 - 102년의 신뢰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단기 4344년 (陰 2월17일)

慶南(キョンナム)日報 (2011年3月21日月曜日掲載)

【인터뷰】

韓国国際大学校 日本からの交換留学生 鐘ヶ江(かねがえ) 和真(かずま)氏
 “韓国人の温かい「情」心に込めて帰ります”

地震被災者助けに感動

“韓国人の温かい「情」心に込めて帰ります”
 韓国国際大学校の日本からの交換留学生 鐘ヶ江(かねがえ)和真(かずま)(20)氏は、“多くの韓国の方々から心より日本を心配し、応援してくれて本当に有難い”と話した。

去る11日、日本史上最悪の強震が発生、国内に滞在中の日本人の多くは、自国の惨事の報道に大きな衝撃を受けた。

1年間の交換留学期間を終えて22日帰国を控えている和真氏も同じように衝撃を受けた。“とても心が痛みました。火山と地震には慣れている日本ではあるが、今回の場合は乗り切ることができない大変な災難でしたので。”

地震発生のお知らせを聞いて、彼も国際電話で家族と友人の安否を確認した。和真氏の故郷は地震の被害がほとんどない日本の南部、九州である。地震が発生した東北地方とは、かなり距離が離れていて海岸に弱い津波が観測されただけで、幸いに被害はなかった。

彼は、“被災で苦しんでいる母国の皆さんを思うと、心が痛い”と話した。津波に続き、福島原発の放射能漏れに対する恐怖が日本全域を襲ったことも心配だった。

そんな思いをしている和真氏に、韓日間の暗い歴史にも関わらず自発的に日本を助ける活動に動き出した韓国人の姿は、大きな感動を与えた。和真氏は、去る17日、晋州市内の歩行者天国通りにて、韓国国際大学校学生会と社会福祉学科の学生達が自主的に立ち上げた「日本震災地への義援金募金活動」に参加した。“日本、ヒムネセヨ(頑張れ)!”と書かれたポスターを見た時には、涙が出そうになったという。

和真氏は、日本の長崎国際大学で社会福祉学を専攻、2年生になる去年の2月に韓国へ留学した。来た時から周りの韓国の友達とは仲良く過ごすことができた。彼は、日本に帰って、社会福祉士資格取得と韓国語能力3級試験を受ける予定だという。しかし、韓国と“さようなら”ではないと話した。長崎国際大学を卒業後は、再び韓国国際大学校の社会福祉大学院の進学を考えている。

和真氏は、“諸先生方、韓国語の先生、そして友達、皆さん本当に有難うございました。卒業したらまた来ます”とお別れの言葉を告げ、淋しさを隠せなかった。

和訳: 国際交流・留学生支援センター
 キム ギョンヒ



터뷰

한국국제대 日 교환학생 카즈마씨

한국인의 따뜻한 情
 가슴에 품고 갑니다

지진 피해 돕기 성원에 감동

“한국인의 따뜻한 정,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일본 교환학생 카즈마씨(20)씨는 “많은 한국분들이 진심으로 일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11일 일본 역사상 최악의 강진이 발생하자, 국내에 체류중인 일본인들은 자국의 지진 참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1년간의 교환학생 체류를 마치고 22일 귀국일을 앞둔 카즈마씨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화산과 지진에 익숙한 일본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었으니까요.”

지진 발생 소식을 듣고 그 역시 국제전화로 가족과 친구들의 안부를 확인하느라 며칠간 발을 동동 굴렀다. 카즈마씨의 고향은 지진피해가 거의 없는 일본의 남부, 규슈라고 했다. 지진이 발생한 동북지방과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 해안가에 약한 쓰나미가 밀려왔을 뿐,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그는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고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쓰나미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 공포가 일본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카즈마씨에게 한일간의 어두운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본 돕기에 나선 한국인들의 모습은 벽찬 감동이었다. 카즈마씨는 지난 17일 진주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서 한국국제대 총학생회와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일본 돕기 성금 모금활동에 참가했다. “일본 힘내세요!”라는 문구를 붙적에는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했다.

카즈마씨는 일본의 나가사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다 2학년인 지난 2월에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한국에 건너와서도 주변의 한국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지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사회복지 자격증과 한국어 능력 3급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하지만 ‘사요나라’는 아니라고 했다. 나가사키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한국국제대 사회복지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카즈마씨는 “교수님,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졸업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말로 잠시간의 이별을 고했다.

글=임명진기자·사진=오태인기자